

---

#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

전문위원 송오섭

---

## I. 개관

### 1. 의의 및 보호법익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등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임
- 사람의 인격가치 또는 행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적 명예를 보호법익을 보고 있음

### 2. 특징

- 구체적 사실 적시 유무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으로 구분됨
- 명예훼손의 경우, 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 ② 적시의 수단이 출판물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각 불법이 가중되어 법정형이 높고, ③ 명예훼손의 대상이 사자(死者)인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함(형법 제308조)
- 한편, 군형법은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죄와 상관을 모욕한 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상관모욕의 경우 일반 모욕죄보다 법정형이 높고, 벌금형이 없음
-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출판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각 반의사불벌죄, 사자 명예훼손, 모욕죄는 각 친고죄이고, 군형법상 상관모욕·상관명예훼손

손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님

### 3.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죄

■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같은 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되겠지만,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개인의 명예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됨.

■ 양형기준 설정에 있어서도 충돌하는 위 기본권 사이의 규범조화적 해석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II. 양형기준 설정대상

### 1. 대상범죄 구성요건 및 법정형

#### 가. 형법

적용법조		죄명	구성요건	법정형
§ 307	①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2년↓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벌금
	②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5년↓ 징역, 10년↓ 자격정지, 1,000만 원↓ 벌금
§ 308		사자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사실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	2년↓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벌금
§ 309	①	(출판물, 라디오)에의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3년↓ 징역 또는 금고,

	②	한명예훼손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 307 ① 죄	700만 원↓ 벌금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 307 ② 죄	7년↓ 징역, 10년↓ 자격정지, 1,500만 원↓ 벌금
§ 311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	1년↓ 징역 또는 금고, 200만 원↓ 벌금
§ 138		(법정, 국회의원)(모욕, 소동)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의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	3년↓ 징역, 700만 원↓ 벌금
§ 107 ②		외국원수 모욕, 명예훼손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인수를 모욕 또는 명예훼손	5년↓ 징역 또는 금고
§ 108 ②		외국사절 모욕, 명예훼손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을 모욕 또는 명예훼손	3년↓ 징역 또는 금고

## 나. 특별법 등

적용법조		죄명	구성요건	법정형
정통 법 § 70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3년↓ 징역, 3,000만 원↓ 벌금
	②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7년↓ 징역, 10년↓ 자격정지, 5,000만 원↓ 벌금
군 § 6 4	③	상관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	3년↓ 징역 또는 금고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	5년↓ 징역 또는 금고
군 § 6 4	①	상관모욕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	2년↓ 징역 또는 금고
	②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	3년↓ 징역 또는 금고
군 § 65		초병모욕	초병을 면전에서 모욕	1년↓ 징역 또는 금고

---

## 2. 양형기준 설정범위

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9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군형법 제64조 제3항) ⇨ 제외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양형보다는 유·무죄 여부가 사회적 관심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다수이고, 정식으로 공소제기되는 사건이 적으며, 벌금형의 선고비율이 높아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 명예훼손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기본 범죄 유형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정할 필요는 없음(ex, 횡령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단순 횡령죄가 아닌 업무상횡령죄를 기본으로 하고, 임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감경요소로 한 예가 있음)
- 언론·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헌론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고, 20대 국회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자는 형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음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의 요청이 실무상 그리 높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범죄화의 요구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9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포함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가벌성이 크고, 명예훼손죄에서 자유형을 선택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여 실무에서도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큼

다. 사자명예훼손(형법 제308조) 포함 여부 ⇨ 포함

- 
- 사례가 적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례가 존재하며, 허위 사실의 적시라는 점에서 가벌성이 있으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하나의 태양에 속하는 범죄로서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함이 타당함

#### 라. 모욕죄(형법 제311조) ⇨ 포함

- 모욕죄의 징역형의 상한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보다 낮기는 하지만, 실무상 사건발생 및 실형선고의 빈도가 명예에 관한 죄 가운데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큼
- 현재 모욕죄에 대해서도 위헌성 논란이 있으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비교하여 비범죄화 요구가 큰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양형기준의 완결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포함함이 상당함

#### 마. 군형법상 상관모욕·명예훼손죄(군형법 제64조 제1항, 제2항, 제4항) ⇨ 포함

- 2017. 7.부터 군사법원에도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군형법상 범죄(순정군사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함.
- 현실적으로 양형위원회의 여건상 군사범죄에 대해서 일거에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음 ⇨ 군사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수정시 군사범죄도 함께 양형기준을 설정함이 타당함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상관명예훼손, 상관(면전, 공연)모욕은 사례수가 적지 않고, 군이라는 특수성을 제외하면 일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함
- 현재 군사법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사법원의 정리된 입장을 대

변하는 전문위원이 위촉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사성 있는 균형법상 상관  
모욕·명예훼손죄도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함께 포함하여 논의할 필요성  
이 있음

바. 법정, 국회의원회장 모욕·소동(형법 제138조), 외국원수 모욕·명예훼손(형법 제107조 제2항), 외국사절 모욕·명예훼손(형법 제108조 제2항), 초병모욕(군형법 제65조) ⇨ 제외

■ 해당 사례가 많지 않고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사. 최종 양형기준 설정범위

죄명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307 ②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5년↓ 징역, 10년↓ 자격정지, 1,000만 원↓ 벌금
사자명예훼손	§ 308		공연히 허위사실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	2년↓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벌금
상관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군 § 64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	5년↓ 징역 또는 금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309 ②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 307 ② 죄	7년↓ 징역, 10년↓ 자격정지, 1,500만 원↓ 벌금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 반(명예훼손)	정통법 § 70 ②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7년↓ 징역, 10년↓ 자격정지, 5,000만 원↓ 벌금
모욕	§ 311		공연히 사람을 모욕	1년↓ 징역 또는 금고, 200만 원↓ 벌금
상관모욕	군 § 64	①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	2년↓ 징역
		②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	3년↓ 징역

---

### Ⅲ. 범죄유형 분류

#### 1. 유형분류 시 고려사항

##### 가. 유형분류의 일반원칙

- 유사한 속성을 가지거나 유사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 내에 포함시켜야 함
- 개별범죄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해당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유형에 속한 범죄들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들이 공통되어야 함

##### 나. 명예훼손범죄 유형분류시 고려 사항

- 명예훼손범죄군은 법정형이 높지 않고, 각각의 범죄마다 법정형의 차이가 크지 않음. 또한 형량분포에 있어서도 각 범죄별로 선고형의 분포에 큰 차이가 나지 않음
- ⇒ 유형을 세분화하는 경우에는 각 유형별 권고형량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서로 다른 유형과 권고형량의 차이를 두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2. 대유형 분류

#####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 2개 대유형으로 분류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구성요건적 측면에서나, 해당 양형인자 측면에서 상이하므로, 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② 모욕을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

### 3. 소유형 분류

#### 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소유형 분류

##### ▣ 출판물 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을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

- 일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법정형 및 불법성에서 차이가 있음
- 실무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의 경우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평균형량이 높고, 징역 1년 이상 선고된 형량분포가 다르며, 징역 2~5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음
-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음

#### 나. 모욕의 소유형 분류

##### ▣ 상관모욕을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

- 일반 모욕과 비교할 때 균형법상 상관모욕은 법정형의 차이가 존재하고, 상관면전모욕죄는 구성요건에 있어 공연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형법상 소추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차별성이 있음
-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함으로써 순정상관<sup>1)</sup>과 준상관<sup>2)</sup> 관계를 양형인자로 고려하는 등 군의 특수성을 독자적인 양형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4. 최종 유형분류

#### 1.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	----	----	----	----

1)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자

2) 명령복종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서 상계급자와 상서열자, 상관모욕죄에서의 상관의 개념에는 준상관이 포함됨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명예훼손			
2	출판물 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 2. 모욕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모욕			
2	상관모욕			

# IV. 형량범위 검토

## 1. 권고 형량범위 설정 기준

### ▣ 명예훼손범죄 권고형량범위 설정 시 일반적 고려사항

-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양형실무의 70~80%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범죄에 관해서는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가할 수 있음
- 명예훼손범죄는 법정형이 낮고(최고 7년 이하), 각 유형별로 법정형에 큰 차이가 없음
- 실무상으로도 대부분 구공판이 아니라 구약식으로 처리되는 사건이 많고, 검사가 구공판을 하거나 법관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이미 공소제기 또는 법정형 선택 단계에서 가중적 양형요소가 상당부분 고려된 경우가 많음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무상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명예훼손과 모욕 모두 대부분 1년 이하이며, 범죄유형별로 선고형량의 차이가 크지 않음

##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량범위 검토

### 가. 양형자료 조사 결과

#### 1) 선고내역

세부죄명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명예훼손	일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수	11	55	66
		비율	16.7	83.3	100.0
	사자명예훼손	수	0	1	1
		비율	0.0	100.0	100.0
	상관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수	0	1	1
		비율	0.0	100.0	100.0
출판물·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출판물 등 이용	수	0	2	2
		비율	0.0	100.0	100.0
	정보통신망 이용	수	12	58	70
		비율	17.1	82.9	100.0

#### 2) 형량분포

명예훼손 구분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4	5	6	8	10	12	18	60		
일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수		14		36	9	2	4	1		66	6.52
	비율		21.2		54.5	13.6	3.0	6.1	1.5			
사자 명예훼손	수					1					1	6
	비율					100					1	
상관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수							1				12
	비율							100				
출판물 등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수	-	1	-	1	-	-	-		-	2	5.00
	비율	-	50.0	-	50.0	-	-	-		-	100	
정통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수	1	15	1	30	7	7	8		1	70	7.56
	비율	1.4	21.4	1.4	42.9	10.0	10.0	11.4		1.4	100.0	

### 나. 형량범위 제안

유 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	-----	----	----	----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명예훼손	-6월	4월-1년	6월-1년6월
2	출판물 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8월	6월-1년4월	8월-2년6월

#### ■ 제1유형(일반 명예훼손)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 양형자료조사결과, 법정형이 유사한 일반체포·감금(형법 제276조 제1항 / 5년 이하 or 700만 원 이하)에 대하여 설정된 형량기준[감경영역(-8월), 기본영역(6월-1년), 가중영역(8월-2년) 다만, 일반체포·감금 유형의 적용범위에는 존속체포·감금(10년 이하 or 1,500만 원 이하), 중체포·감금(7년 이하), 존속중체포·감금(2년 이상), 특수중존속체포·감금/상습중존속체포·감금(3년 이상) 등이 포함되고, 실무상 일반체포·감금죄의 선고형량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선고형량보다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형량기준보다 다소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보호법익, 행위태양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경영역(-6월), 기본영역(4월-1년), 가중영역(6월-1년 6월)이 적정함

#### ■ 제2유형(출판물 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출판물 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죄의 법정형, 양형자료조사결과, 법정형이 유사한 일반 상해(형법 제257조 / 7년 이하 or 1,000만 원 이하)에 대하여 설정된 형량 기준[감경(2월-10월), 기본(4월-1년6월), 가중(6월-2년6월) 다만, 일반상해 유형의 적용범위에는 존속상해(10년 이하 or 1,500만 원 이하), 상습상해(10년 6월 이하 or 1,500만 원 이하), 공동존속상해·상습존속상해(15년 이하, 2,250만 원 이하) 등이 포함된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보호법익, 행위태양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 특히 출판물 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에 대한 엄정한 양형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감경영역(-8월), 기본영역(6월-1년4월), 가중영역(8월-2년 6월)]이 적정함

### 3. 모욕 형량범위 검토

#### 가. 양형자료 조사 결과

##### 1) 선고내역

단위 : 명, %

세부죄명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모욕		수	42	101	143
		비율	29.4	70.6	100.0
상관모욕	공연모욕	수	1	26	27
		비율	3.7	96.3	100.0
	면전모욕	수	1	2	3
		비율	33.3	66.7	100.0
	소계	수	2	28	30
		비율	6.7	93.3	100.0

##### 2) 형량분포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2	3	4	5	6	8	10	12	18	24	36	60		
모욕			수	5	5	75	1	53	4	-	-	-	-	-	143	4.55
			비율	3.5	3.5	52.4	0.7	37.1	2.8	-	-	-	-	-	100.0	
상관 모욕	공연모욕	수	-	4	1	-	13	2	-	7	-	-	-	-	27	
		비율	-	14.8	3.7	-	48.2	7.4	-	25.9	-	-	-	-	100.0	
	면전모욕	수	-	-	1	-	1	1	-	-	-	-	-	-	3	
		비율	-	-	33.3	-	33.3	33.3	-	-	-	-	-	-	100.0	
	소계	수	-	4	2	-	14	3	-	7	-	-	-	-	30	7.22
		비율	-	13.3	6.7	-	46.7	10.0	-	23.3	-	-	-	-	100.0	

#### 나. 형량범위 제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모욕	-4월	2월-8월	4월-1년
2	상관모욕	-6월	4월-10월	6월-1년2월

■ 제1유형(일반 모욕)

- 법정형이 유사한 도주죄(형법 제145조 제1항 / 1년 이하)에 대하여 설정된 형량기준[감경(-6월), 기본(4월-8월), 가중(6월-1년) 다만, 징역형만 있는 도주죄와 달리 모욕죄에는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하여야 함], 법정형, 양형자료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경영역(-4월), 기본영역(2월-8월), 가중영역(4월-1년)이 적정함

■ 제2유형(상관모욕)

- 양형자료조사결과, 평균형량과 최다 선고형량, 일반 모욕의 형량기준과 일반 명예훼손 유형의 형량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경영역(-6월), 기본영역(4월-10월), 가중영역(6월-1년2월)이 적정함

## 4. 최종 권고 형량범위

###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명예훼손	-6월	4월-1년	6월-1년6월
2	출판물 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8월	6월-1년4월	8월-2년6월

### 2. 모욕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모욕	-4월	2월-8월	4월-1년
2	상관모욕	-6월	4월-10월	6월-1년2월

## V. 양형인자

### 1. 양형인자 설정의 기준

- ▣ 과거에 실제로 선고된 판결을 분석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소를 추출하고 그 영향의 정도를 평가함. 양형인자를 추출하거나 그 영향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규범적인 고려 요소도 적절하게 반영함

### 2. 구체적인 양형인자 검토

#### 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li> <li>○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li> <li>○ 미필적 고의</li> <li>○ 전과가능성이 낮은 경우(2 유형)</li> <li>○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li>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균형법상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아자</li> <li>○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li> <li>○ 자수</li> <li>○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li> </ul>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 가담</li> <li>○ 전과가능성이 낮은 경우(1 유형)</li> </ul>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li>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ul>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명예훼손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모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1) 특별감경인자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약취·유인·인신매매, 폭력, 공갈, 체포·감금·유기·학대, 장물, 강요, 손괴범죄 등 다수의 범죄에 있어서의 특별감경인자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공무집행방해범죄(공무집행방해),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체포·감금),

---

권리행사방해범죄(강요), 업무방해범죄(업무방해), 손괴범죄(일반적 기준) 등 다수 범죄에 있어서의 특별감정인자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로부터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 피해를 입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등 피해자가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 공공의 이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범죄에서 적시된 허위사실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불법과 비난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특별감정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선거범죄(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의 양형기준 중 특별감정인자인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나 위증·증거인멸범죄(위증) 양형기준 중 특별감정인자인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참고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적시된 사실 중 일부가 허위이기는 하나, 허위사실과 함께 적시된 사실 중 상당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 전체적인 맥락에서 허위사실이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크게 중요성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 ■ 미필적 고의

- 미필적 고의는 살인범죄, 폭력범죄, 체포·감금범죄, 장물범죄, 권리행사 방해범죄, 업무방해범죄 등 다수의 범죄에 있어서 특별감경인자임
- 명예훼손범죄 양형실무상 허위사실 또는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선고형량에 유의미하게 반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전에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나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거나 범행 당시에는 사실이라고 오인할 만한 근거가 일부 있었던 경우 등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경우
    - 특정의 소수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2유형)

- 2유형에 있어 법정형 및 권고형량이 높은 이유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수단이 사용됨으로써 법익침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기 때문이므로, 전파성이 높은 수단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전파의 정도가 미미하여 2유형이 예정한 법익침해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면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실제 실무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사정은 선고형량에 유의미하게 반영되고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 인터넷 등을 사용한 경우라도 조회 수가 극히 미미한 경우. 다만, 다른 사용자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는 일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비하여 법정형의 차이가 크므로,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은 피해자가 있는 대부분의 범죄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어 있음
- 명예훼손범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이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상관명예훼손죄 제외)에 해당하는 등 다른 피해자 있는 범죄보다도 개인적인 측면이 강함
- 상관명예훼손이나 제1심 판결선고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또는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가 취소된 경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또한, 범행 후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사로 시정조치, 공개 사과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된 경우에도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양형인자의 정의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발언의 취소, 게시물의 삭제 또는 정정, 공개 사과 등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이 널리 알려져 피해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도 포함한다.

## ■ 농아자 / 자수

---

- 
- 대부분의 범죄에서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범죄군 양형기준과의 통일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무난함

####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은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인과 비교하여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함. 이는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형을 정함에 있어 특별히 참작하여야 할 행위자적 요소에 해당함
- 최근 형법 개정을 통하여 심신미약을 필요적 감경사유에서 임의적 감경사유로 변경한 것은 주로 주취범죄에 대한 엄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위하여 법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취지일 뿐,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을 감경 요소에서 아예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님
- 현행 양형기준 상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전부, 대부분의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에서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은 특별감경인자에 포함되어 있는바,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을 특별감경인자에서 배제할 경우 양형실무와 양형기준의 괴리로 인하여 양형기준의 규범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2) 특별가중인자

####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공무집행방해범죄, 폭력범죄, 방화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업무방해범죄 등 다수의 범죄에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는 특별가중인자임
-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성 명예훼손범죄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에 기초한 명예훼손범죄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별다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이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다른 범죄나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야기됨으로써 결과반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실직, 가정파탄, 자살시도나 자살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증거인멸범죄, 선거범죄, 공갈범죄 등 다수의 범죄에 있어서 특별가중인자임
- 같은 명예훼손범행이라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여 행위반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 합성된 사진이나 조작된 SNS(Social Network Service) 대화내용을 첨부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균형법상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 균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균형법 제64조 제4항)는 일반 명예훼손죄와 비교할 때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조직의 규율과 위계를 중시하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에 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 다른 범죄군 양형기준과의 통일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동일하게 규정

### 3) 일반감경인자

#### ▣ 소극가담

- 대부분의 양형기준에서 일반감경인자로 반영되어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1유형)

####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본인 책임 있는 심신미약의 경우에도 책임주의 원칙상 형의 감경요소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안이 존재함
  - 우연 명정(酤酩)(예를 들어 ① 범행과 관계없이 치료목적으로 약물을 복용

하였다가 심신미약 상태가 초래된 경우, ② 사교적 모임에서의 음주 등 음주의 목적이 범행과 무관한 경우, ③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음주 명정상태에서 타인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 등)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명정에 빠진 데 대한 귀책사유가 없어 비난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이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일반감정인자로서 고려함이 타당함

- 특히 명예훼손이나 모욕 범행의 경우 우연 명정 상태에서의 범행 사례가 적지 않음
- 다만, 양형기준의 전체 체계상 균형, 주취범행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와 형법 개정의 취지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서술식 기준을 두어 본인 책임 있는 심신미약이 양형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대부분의 범죄에서 일반감정인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통일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일반감정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4) 일반가중인자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대부분의 범죄에서 일반가중인자로 규정하므로, 양형기준의 통일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나. 모욕 양형인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li> <li>○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li> <li>○ 공연성이 없는 경우(군형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li> </ul>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제64조 제1항의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피해자가 준상관인 경우(2 유형)	
	행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 전과(집행 종 료 후 10년 미만)

## 1) 특별감경인자

###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공무집행방해범죄(공무집행방해),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체포·감금), 권리행사방해범죄(강요), 업무방해범죄(업무방해), 손괴범죄(일반적 기준)의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가 피고인을 자극하거나 흥분케 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경우 등 피해자가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

---

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모욕범죄에서 일회적 욕설이나 단문의 댓글에 그치는 등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불법과 비난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일회적 욕설이나 단문의 댓글에 그치는 경우
- 범행 당시 소수의 사람이 범행현장에 있었던 경우
- 인터넷 등을 사용한 경우라도, 조회 수가 극히 미미한 경우. 다만, 다른 사용자에게 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공연성이 없는 경우(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경우)

- 상관모욕에서 공연성이 없는 상관면전모욕은 상관공연모욕(군형법 제64조 제2항)에 비하여 법정형 및 불법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양형인자 중 해당 부분 참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은 피해자가 있는 대부분의 범죄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어 있음
- 모욕범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이고 친고죄(상관모욕죄 제외)에 해당



---

하는 등 다른 피해자 있는 범죄보다도 개인적인 측면이 강함

- 상판모욕이나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가 취소된 경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한편, 범행 후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사로 시정조치, 공개 사과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된 경우에도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양형인자의 정의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발언의 취소, 게시물의 삭제 또는 정정, 공개 사과 등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도 포함한다.

## 2) 특별가중인자

###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공무집행방해범죄, 폭력범죄, 방화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업무방해범죄 등 다수의 범죄에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는 특별양형인자임
-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 목적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에 기초한 모욕범죄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별다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이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야기됨으로써 결과반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 실직, 가정파탄, 자살시도나 자살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같은 모욕범행이라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여 행위반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모욕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동종 누범

### 3) 일반감경인자

■ 피해자가 준상관인 경우(2유형)

- 상관모욕은 순정상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기본적인 범죄로 상정하는 것이므로, 준상관에 대하여는 순정상관에 대한 모욕보다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 군형법 제2조 제1호 후문의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의미한다.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양형인자 중 해당 부분 참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4) 일반가중인자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VI. 집행유예 기준

###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li>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순정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군형법)</li> <li>○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li> <li>○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li> <li>○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li> <li>○ 전과가능성이 낮은 경우</li> <li>○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자수</li> </ul>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li> <li>○ 계획적 범행</li> <li>○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li>○ 피해 회복 노력 없음</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li> <li>○ 우발적 범행</li> <li>○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li>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진지한 반성</li> <li>○ 상당 금액 공탁</li> <li>○ 피고인이 고령</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ul>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양형인자표를 기본으로 하되, 다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의 집행유예 기준을 참고하여 정함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양형인자표상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되어 있는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는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반영함

- 다만 양형인자표상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되어 있는 ‘군형법상 상관에 대

---

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죄질이 중한 순정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만을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반영함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은 대부분의 범죄의 집행유예 기준에서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통일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반영함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양형인자표상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어 있는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자수는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반영함
- ‘전과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양형인자표상 2유형에 한하여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어 있고, 1유형에 있어서는 일반감경인자로 반영되어 있으나, 집행유예기준에 있어서는 모든 유형에 대하여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반영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대부분의 범죄의 집행유예 기준에서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통일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반영함

- 그밖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는 다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의 집행유예 기준을 참고하여 정하였음

## 2. 모욕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li>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li> <li>○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li> <li>○ 공연성이 없는 경우(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경우)</li> <li>○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적 범행</li> <li>○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li>○ 피해 회복 노력 없음</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발적 범행</li> <li>○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li>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진지한 반성</li> <li>○ 상당 금액 공탁</li> <li>○ 피고인이 고령</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ul>

■ ‘모욕’의 양형인자표를 기본으로 하되, 다른 개인적 범익에 관한 죄의 집행유예 기준을 참고하여 정함

###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양형인자표상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되어 있는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는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반영함

###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양형인자표상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어 있는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연성이 없는 경우(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반영함

- 
- 그 외의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집행유예 기준에서의 설명과 같음

### 3.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음
- ‘순정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군형법)’에서 ‘순정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함(군형법 제2조 제1호 전문)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 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함